

# 쌍방과실 자기부담금, 누가 부담해야 할까



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법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과 자기부담금 처리 문제는 늘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특히 사고의 당사자인 피보험자와 제3자의 쌍방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권리 범위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핵심 쟁점이다. 최근 대법원은 이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87284 판결).

원고들(피보험자들)은 보험회사(보험자)와 자기차량손해보험 항목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들은 각각 상대차량 운전자들(제3자들)과 쌍방과실이 경합한 자동차사고를 발생시켰고, 자기차량손해가 발생함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액수 상당의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후 원고들은 이처럼 공제된 자기부담금 상당액이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제3자들의 보험회사들(피고들)을 상대로 위 자기부담금 중 과실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원고들은 스스로 자기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로 자기부담금 약정이 포함된 자기차량손해보험계약을 체결했고, 사고발생 후 그로 인한 손해 중 일부인 '자기부담금'을 그 '약정'에 의해 자신들이 부담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이를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로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험자대위권(상법 제 682조 제1항)에 따라 보험자는 자신이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서만 제3자에게 청구 가능하나, 자기부담금 약정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 상당액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 부분까지 제3자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못한다고 볼 이유는 없다"면서 "원고들은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 부분을 피고들 상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보험자대위권은 보험자(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그만큼을 대신해서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보험자대위권의 취지는 피보험자와 보험자 및 제3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위험을 분배하며, 피보험자가 보험금 수령 후에도 제3자에게 중복 청구해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이에 대법원은 보

험자는 자신이 지급한 보험금 범위 내에서만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자기차량손해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의 성격을 고려해 피보험자는 자기부담금 중 자신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만 최종적으로 부담할 책임이 있고,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보험자대위권과 자기부담금 약정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보험계약의 본질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에 있다. 피보험자가 보험금 수령 후에도 제3자에게 중복 청구해 이득을 얻는 것은 손해보험의 원칙에 반한다. 반대로 제3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정의를 어긋난다.

대법원은 이 두 가지 위험을 동시에 차단하면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서 보장된 범위를 넘어 이득을 얻지 않도록 하면서도, 제3자가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보험자·피보험자·제3자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조정했다. 이번 판결은 자동차보험 실무에서 자기부담금 처리 방식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법무법인 바른

# 장애가 소음이 될 때, 인권은 죽어간다



김지순  
신원선 (유통&라이프부)

새벽 1시 자폐 성향이 있는 21세 아들의 "돈카스가 먹고 싶다"는 말에 외투를 챙겨 입고 아들과 식당으로 향한 김창민 영화감독은 그 날 차디찬 아스팔트 위에서 생을 마감했다.

최근 세간을 분노케 한 '영화감독 김창민 씨 사망 사건'은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장애가 있는 아들이 내는 소리에 "조용히 시키라"며 시작된 시비는 6대 1의 집단 폭행으로 번졌고, 아버지는 끝내 뇌사 관정을 받은 뒤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며 세상을 떠났다.

이날 현장의 공권력은 무능했다. 출동한 경찰은 피투성이가 된 피해자를 앞에 두고

도 가해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다. 심지어 아들을 지키려 나이프를 들었던 아버지의 절박한 방어기제를 보고 사건을 '쌍방 폭행'으로 규정했다. 경찰의 초동 수사가 가해자의 폭행 횟수를 '20여 회'에서 '3회'로 축소 보고하는 동안, 가해자들은 거리를 활보하며 자신의 폭력을 미화하는 합합 곡까지 발표했다.

뒤늦게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이들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사과문을 읽으며 "유족의 연락처를 몰라 사과를 못 했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면, 변호사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연락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사건의 밑바닥엔 장애를 향한 차가운 시선이 깔려 있다. 발달장애인의 돌발 행동을 배려의 대상이 아닌 '소음'으로 본 결과가 집단 폭행의 시작이었다. 비장애인의 소란에는 관대하면서 장애인의 행동에는 유

독 엄격한 우리 사회의 낮은 인권 감수성이 빚어낸 참사다.

사법 시스템도 가해자의 편이었다. 경찰이 초동 수사에서 '쌍방' 프레임을 짜버렸고, 오히려 유족이 직접 CCTV를 뒤지며 증거를 모아야 했다. 수사기관의 안일함과 법원의 기계적 영장 기각이 결합될 때 법은 약자의 방패가 아니라 가해자의 은신처가 된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

김 감독은 생전 경찰 인권영화제에서 상을 받았을 만큼 인권에 각별했던 영화인이었다. 그런 그가 정작 가장 인권이 무너진 현장에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지독한 역설이다.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됐다. 우리는 이 사건을 결코 쉽게 잊어서는 안 된다. 이번 처벌 결과는 우리 사회가 장애인 가족의 삶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결정짓는 척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tree6834@metroseoul.co.kr

##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20일 (음 3월 4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  **48년생**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입니다. **60년생** 서남쪽이 길방입니다. **72년생** 유망한 업을 모색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세요. **84년생** 긍정적인 사고로 소원을 바라는 것이 유익합니다.
-  **49년생** 대체로 길하나 여성은 실물수가 있습니다. **61년생** 사기를 당하게 되니 주의하세요. **73년생** 희망을 버리지 않는 마음이 중요할 것입니다. **85년생** 이성간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  **50년생** 스스로 화를 불러들인 격이니 이제는 마무리를 잘 하세요. **62년생** 종교가 있다면 지성으로 빌도록 하세요. **74년생** 건강에 유의하세요 **86년생** 뜻밖의 귀인에게 도움을 받겠습니다.
-  **51년생** 사사롭게 흐르지 아니하면 크게 쓰일 수 있습니다. **63년생**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마세요. **75년생** 밖에 나가면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87년생** 구설수에 오르게 되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  **52년생** 집에 있는 것이 좋으니 외출을 삼가세요. **64년생**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언행을 조심하세요. **76년생** 매매가 있다면 길합니다. **88년생** 새로운 운의 흐름을 맞게 되어 기쁜 일입니다.
-  **53년생**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세요. **65년생** 지금의 사업에 충실하세요. **77년생** 소송이 있다면 다음 기회로 미루세요. **89년생** 친구와 함께 여행을 떠나면 문제의 답이 나오겠습니다.
-  **54년생** 남의 말에 귀 기울일 때입니다. **66년생**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언행에 각별히 주의를 하세요. **78년생** 배우자의 건강에 신경을 쓰세요. **90년생** 큰 돈이 지출될 수 있습니다.
-  **55년생** 가문의 휴식은 약이 됩니다. **67년생** 돈 때문에 망신수가 있으니 근신하세요. **79년생** 너무 많은 조심성은 해가 됩니다. **91년생** 재능이 부족한 탓을 부모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  **56년생** 가정에 경사가 있겠습니다. **68년생** 안좋은 관계의 사람과 빠른 시간에 화해하도록 하세요. **80년생** 큰 뜻이 펼쳐질 것입니다. **92년생** 이상형의 직종을 만날 수 있습니다.
-  **57년생** 열심히 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69년생** 성실한 삶의 자세가 빛을 보게 됩니다. **81년생** 귀인의 도움이 있습니다. **93년생** 잃어버린 물건이 서북방에 떨어져 있습니다.
-  **58년생** 모든일이 어수선하고 불길합니다. **70년생** 버리고 있는 업종이 불황을 만났습니다. **82년생**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분위기입니다. **94년생** 남쪽에 있는 사람은 귀인입니다.
-  **59년생** 외출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71년생** 집안에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83년생**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오고 성취될 것입니다. **95년생** 동쪽부근에 가출한 친구가 있습니다.



## 김상회의四季 슬픈 역사

한국 영화가에 천만을 넘는 흥행가도를 달리는 영화가 있다. 잘 아시듯 '왕사남'이다. 조선의 슬픈 역사 가운데 손꼽히는 단종의 비극을 모티브로 하였다. 아주 예전에도 춘원 이광수는 단종의 슬픈 이야기를 소설로 썼고 그것이 '단종애사' (端宗哀史)다. 소설도 큰 히트를 쳤고 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화도 역시 흥행에 성공했다. 지금 천만을 훌쩍 넘긴 왕사남은 단종에게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단종이 사사되고 그 주검을 모신 작은 관리 엄흥도와 단종의 짧은 날 동안의 궤적에 인간애적인 상상을 가미하여, 웃음과 심장을 후벼 파는 슬픔을 함께 느끼게 해준다. 그러면서 어른들의 입담처럼 익숙해진 말이 떠오르니 한 두 번쯤 들 어보셨을 것이다.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라는, 놀리는 이야기라 짐작하면서도 듣기 민망한 언사이다.

그런데 이 말의 어원도 단종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영화에서도 잠시 나오지만, 세조의 아우이자 단종의 숙부이기도 한 금성대군은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노력이 밀고로 허사가 되면서 당시 경북 영주의 순흥부로 유배 오게 되는데, 유배를 와서도 순흥부 부사 이보흥과 뜻을 맞춰 또다시 단종의 복위운동을 계획한다. 이 역시 관노의 밀고로 허사가 되면서 금성대군은 사시를 당하고 순흥부는 역모의 땅으로 지정되면서 죄없는 백성들까지 모두 처형당하였다. 사람들은 아이들만이라도 살리고자 순흥부 청다리 밑으로 아이들을 숨겼고, 버려진 아이 중 살아남은 애들을 불쌍히 여긴 관노들이 당시 한양으로 데려와 키웠다 한다. 이때부터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생겨났다는 것이다. 우리 민족의 기쁨과 슬픔, 눈물과 한이 스며 있지 않은 것이 없다. 이 모든 불행한 일들에 대해 누군가 탓할 것인가.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세익하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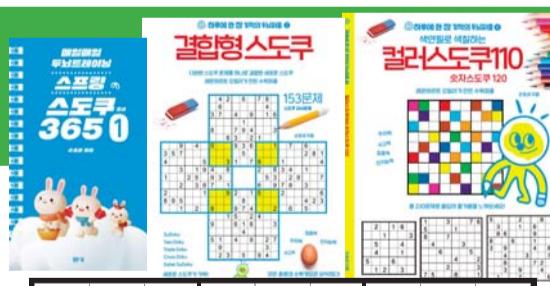
###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세로 3x3 박스의 일대 퍼즐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4	1	9	3	6				
	6			4				
	2				8			3
	4							9
		7		1		6		
	8							5
2			6				4	
				2			8	
			8	7	5	2		1

	1	6		5		9		2
		4	2					6
5				9				
		8			2			
4								1
				6		5		
8				2				9
	8				3	7		
6	7		1			4	8	

1	8	2	9	4	8	7	6	9
9	8	6	1	2	7	9	4	8
9	7	4	8	6	9	8	1	2
7	9	8	6	9	2	8	1	
8	2	9	7	1	9	4	8	6
4	6	1	2	8	8	9	7	9
8	9	7	8	1	6	2	4	1
6	1	9	4	7	2	8	9	8
2	4	8	9	8	6	1	4	7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96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1 2017년3월09일 제2000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